

사원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추석맞아 소외이웃 지원활동

메리츠화재는 9월 17일, 아홉 번째 걱정사연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 신당동 내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600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이불 및 전기매트를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윤덕재 인사총무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자 50명이 직접 물품을 배달했다.

‘91가지 걱정해결사업’은 작년보다 이어져오는 메리츠화재만의 대표적 나눔경영 사업으로,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전국 소외이웃들로부터 접수된 걱정사연을 해결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서울시 중구청과 ‘걱정해결사업 MOU’를 체결하고 소외이웃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7일에는 80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초구에 소재한 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었다. 또 10일에는 강남지역의 소외 어르신들과 홀트일산복지타운과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각각 1000만원 상당의 1사 1촌 농산물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메리츠화재는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임직원이 직접 나서 어려운 이웃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모두 함께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91가지 걱정해결사업으로 전국의 소외이웃 걱정해결에 앞장서는 메리츠화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2013 대한민국 경영대상’ 수상



한화손해보험은 7월 19일 63빌딩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CSR경영 부문 한국의 지속가능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학회와 채널A, 동아일보에서 공동 개최한 2013대한민국 경영대상에는 43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5개의 분야에서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한화손해보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봉사하는 기업상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특화프로그램 봉사활동을 비롯해 혁신 경영문화와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성실히 임해온 공로로 지속가능 경영대상 분야의 CSR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경영시스템 자체 점검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경영활동의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그린 리모델링 업무 협약 체결



한화손해보험은 8월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신한은행(행장 서진원)과 함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후 건축물의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인 그린 리모델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금융이 함께 함으로써 지속적인 전력난과 에너지 가격상승 등 국가 및 가계의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공사 건축물 보험요율 할인 등의 보험상품과 단열 성능과 에너지 절감액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자 비용 지원을, 신한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건축물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 에너지 위기극복과 국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손해보험

가치관 선포식(미션&비전) 개최



롯데손해보험은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 한다' 는 미션을 9월 25일 선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미션은 고객의 미래에 대한 위험과 재정적 불안을 파악하여 고객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으며,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려 손해보험업계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하는 열정과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롯데손보는 상기 미션을 바탕으로 'Excellent Company! 2018' 비전을 선포하여 '내실있는 회사', '고객이 선택하는 회사', '구성원이 행복한 일터'를 실현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수고객 대상 특별한 보험증권 전달식 개최

롯데손해보험은 8월 16일 사직구장에서 부산지역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자이언츠 선수와 함께하는 특별한 보험증권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보험증권 전달식 행사에서는 롯데자이언츠 강민호, 송승준 선수가 함께 참여하여 롯데손보 7월 우수고객에게 고객과의 약속증서인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한편 자이언츠 티셔츠 및 싸인볼 증정, 즉석 가족 기념사진 촬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보험증권 전달식 후 롯데자이언츠 대 넥센하어로즈의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MG손해보험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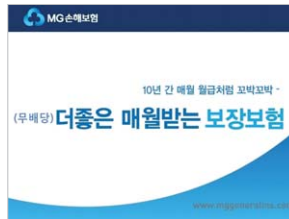


MG손해보험은 9월 25일 서울 역삼동 본점에서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MG손해보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환우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향후 백혈병과 만성신부전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사회공헌 담당자는 "MG손해보험 직원들의 나눔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무배당 더좋은 매월받는 보장보험(1309)' 출시



MG손해보험은 9월 16일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 더좋은 매월받는 보장보험(1309)'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 또는 상해·질병 50%이상 후유장애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0년 동안 월급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해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안심보험이다. 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한국인 사망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질병과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으며, 보험가입 1년 후부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80% 한도 내에서 매년 수시로 중도인출이 가능해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납입면제제도' 또한 이 상품의 특징이다. 소득상실 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정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암 진단, 상해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납입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도 정상납입과 동일하게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도인출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사내 소통 강화를 위한 '통통(通通) day'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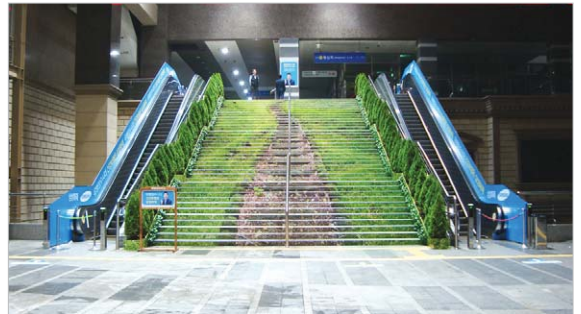
흥국화재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직원과 CEO가 함께 하는 '통통 day'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통 day'는 소규모 그룹별 미팅을 통해 상하간, 수평간 의사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 간 신뢰를 쌓고 조직의 역동성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윤순구 대표이사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9월 24일 진행된 제1회 '통통 day'는 고객지원실 과장급 12명이 참여해 대표이사 와 오찬을 나누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자기소개를 비롯해 회사의 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대표이사에게 묻고, 평소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제안 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예로서항 등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했다. 식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통통 day'는 직원들 모두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통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월 1회 다양한 팀과 직급의 사람들이 참여해 대표이사와 소통의 장을 열 어갈 계획이다.



고객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이색 마케팅 실시



삼성화재는 지난 9월 12일, 서울 왕십리역에 '무병장수의 길'을 설치했다. '무병장수의 길'은 왕십리역사 중앙 계단을 잔디와 수풀,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처럼 꾸민 것으로, 삼성화재 건강보험 '수퍼플러스'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수퍼플러스'는 다양한 생활 위험부터 사망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이며, 최근 CF를 통해 '유병장수시대'라는 신 조어를 만들어낸 바 있다.

새로 생긴 '무병장수의 길'은 숲길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톤치드를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길로서 9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이와 연계한 SNS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무병장수의 길을 정복하라! Step by Step 미션 3"은 가상으로 왕십리 계단을 제작해, 온라인에서도 무병장수의 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서, 삼성화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 외에도 '유병장수시대, 무병장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삼성화재가 제안하고 있는 무병장수방법에는 식습관 개선, 생활습관 개선, 운동의 생활화 등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작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원회사

H 현대해상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수상



현대해상은 9월 24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있었던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에서 손해보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대상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시민단체, 학계, 금융 당국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관행, 제도 및 조직구성에 대한 개선 실적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현대해상은 민원 예보제, 대내민원 서포터제, 민원개선간담회 등 진일보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상인 손해보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이 지난 9월 12일 본사에서 있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해상 관련 임직원과 경찰청 관련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현대해상은 직원들의 서약서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LIG 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통합 상품 출시



LIG손해보험은 9월 5일,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플랜 형태의 통합 자동차보험 상품인 'LIG매직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LIG매직카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고객 특성에 따라 자동차보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고객의 Life Style에 따라 The Best 플랜, 여성 플랜, 레저 플랜, 시니어 플랜, Life 플랜 등 총 5가지의 플랜을 제공한다. 다양하고 충분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최고급형 플랜인 'The Best 플랜'이 적합하며, 여성 또는 부부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사고 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형수술비와 상급병실이용료 등을 지원해 주는 '여성 플랜',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자동차사고로 골프, 스키와 같은 레저용품의 파손까지 보상이 되는 '레저 플랜'이 유용하다. 또한 '시니어 플랜'은 부모님, 실버 세대 등을 겨냥한 플랜으로서, 자손 치료비 한도 확장 및 상급병실이용 특약 가입이 가능하며 고령 운전자에게 어울린다.



사회공헌사업으로 연수원 대강당 무료대관

LIG손해보험은 9월 17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기관, NGO단체, 자원봉사관련

기관 및 문화, 예술, 평생교육 등 비영리 목적의 공익성 행사를 하는 단체(기관)에게 LIG인재니움수원(LIG손해보험 수원 소재 연수원) 대강당을 주말에 무료 대관한다고 밝혔다.

LIG인재니움수원은 도심 속의 첨단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연수원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극장식으로 설계된 총 241석 규모의 대강당은 각종 세미나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이용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시설을 사용하길 원하는 단체(기관)는 LIG손해보험 사회공헌팀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동부화재

손보업계 최초 DJSI World에 편입



동부화재가 세계 최대 금융정보 기관인 다우존스에서 발표한 2013 다우존스 대한민국 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는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고의 보험

사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DJSI World지수는 미국의 다우존스 인덱스와 스위스의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AM이 공동으로 전세계 2,5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경제, 사회, 환경 등 기업의 총체적인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글로벌 표준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꼽힌다. 전 세계 평가 대상 2,523개 기업 중 333개 기업이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기업은 동부화재를 포함해 23개에 불과하다. 특히 보험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15개사만이 DJSI World지수에 편입됐다.

한국소비자웰빙지수 자동차보험 6년 연속 1위



동부화재)가 2013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8월 22일 역삼동 리츠 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위 인증을 수여받았다. 한국소

비자웰빙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지난 2004년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평가 지수다. 방식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 등 5개의 기준을 지수화 해 1위를 선정한다.

동부화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68.75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환경성에 대한 웰빙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남 동부화재 대표이사는 "2010년 10월 '다이나믹 동부'라는 뉴슬로건을 선포하고 꾸준한 고객감동경영을 추진한 결과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며 "고객 감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최고보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손해보험

추석맞이 송편나누기 봉사활동 실시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3월, 농협공제로부터 새롭게 출범한 손해보험사로 사회가 공존하는 틀 형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점진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

먼저 지난해 5월 25일, 경기도 강화군의 연춘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해마다 2~3회에 걸쳐 농번기 일손 돕기 및 지역특산물 구입, 임직원 가족의 농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부터 '축사 안전점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기점검을 통한 화재사고 방지 및 보험컨설팅을 통한 불완전판매 감축 등 농업인 실익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경찰청과 함께 농기계 사고율 감축을 위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야광스티커와 안전삼각대, 야광봉 등을 농기계 운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KFPA,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MOU 체결



KFPA는 7월 9일(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백현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에 위치한 KFPA 본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교육, 기술·정보 교류 등에 관한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MOU 체결을 통해 향후 KFPA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 사고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의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원인규명 및 연구 등과 관련한 시험·연구시설의 활용과 시료의 시험·분석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MOU 체결을 통해 향후 KFPA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 사고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의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원인규명 및 연구 등과 관련한 시험·연구시설의 활용과 시료의 시험·분석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KFPA 이기영 이사장은 MOU 체결식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최근 여수 및 포항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산업시설의 화재·폭발 예방대책 및 피해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의 제거, 사고의 조사·분석 등 협력분야에 있어서 양 기관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FPA, 공군 초청 화재예방교육 실시



KFPA는 7월 15일(월) 공군본부 소속 소방간부 40명을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으로 초청하여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군사시설의 화재발생을 저감 및 소방기술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화재예방교육은 기존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재난 대비훈련(FTX)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 강사의

이론교육과 함께 경보설비,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KFPA 관계자는 "최근 군사시설의 현대화, 대형화에 따라 소방시설 또한 최신의 설비가 구축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보다 높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며, "군대의 화재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 온 화재예방교육도 보다 전문화하여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KFP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3년 설립된 종합방재기관으로, 전국의 중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보안을 필요로 하는 군부대, 국가 중요시설 및 방위산업체의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있으며, 매년 육/해/공군의 전국 군사시설(병영생활관, 주택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FPA 서울 어린이 화재안전 위해 나서다

- 서울시교육청과 화재예방교육을 위한 MOU 체결 -



KFPA는 7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화재예방교육 MOU』를 체결하였다. KFPA 이기영 이사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MOU는 화재예방교육을 통해 서울지역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화재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향후 KFPA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화재 예방교육, 화재예방 관련 정보 및 자료 교환,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공동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기영 이사장은 이날 MOU 체결 직후 서울지역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서울녹색어머니회장, 패트roller중앙회장, 어린이안전학교 이사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2013 서울학생 안전선언」을 선포하고 '365일 안전사고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선언식에서 이기영 이사장은 "KFPA와 서울시교육청, 각 기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 서울학생 안전선언'을 선포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므로, KFFPA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화재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FFPA는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전국의 대형 건물에 대한 무료 화재안전점검을 비롯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아파트 주민, 직장인, 장애인, 노약자, 군인,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예방교육을 원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 원하는 시간에 해당 장소를 직접 찾아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KF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가천대와 MOU 체결



KF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우리나라 방재기술 발전 및 연구·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8월 29일 오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가천대학교 화재소방과학연구소와 『학술·기술·교육·연구 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방재시험연구원과 가천대학교는 소방방재분야에 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 인력과 학술·기술·교육·연구 정부자료를 상호 교류하며, 양 기관이 보유한 기자재 및 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진훈 방재시험연구원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학연 양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방재관련 산업체 및 관계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방재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1986년 방재관련 시험연구를 통한 ‘방재기술의 세계화 및 보험산업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방화제품에 대한 시험 ▲첨단 방재기술 연구 ▲전문방재기술교육 ▲ISO/TC92(화재안전분야) 국제표준 개발 ▲화재원인조사 ▲FILK 인증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FMRC, 중국 상해소방연구소, 일본 JTCCMM,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서울소방학교 등 국내·외 기관들과

MOU 체결 및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등 연구원의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세계에서 2번째로 폭발시험기관 인정 획득



KF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지난 8월 말 폭발안전밸브의 형식승인기관으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독일선급(GL : Germanischer Lloyd)으로부터 세계에서 2번째로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의 폭발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선박의 경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로부터 소방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 화재 시 자력으로 소화해야 한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번져 배가 전소되거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선박분야에서는 화재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최고 수준의 소화·방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는 연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증기로 인해 엔진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압력을 화염 없이 배출하여 선박시설 및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조업체가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를 조선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제선급연합(ACS)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폭발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폭발안전밸브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곳은 체코의 시험기관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국내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금번 방재시험연구원이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게 되어 물류비용 및 기간단축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방재시험연구원이 평소 폭발에 대한 시험 및 연구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 이번 인정을 획득하게 되었다”며 “국내 비용절감은 물론 해외 업체에서도 시험의뢰가 들어와 외화획득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